



제목	The Iranians: Persia, Islam and the Soul of a Natio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A Plume Book
발행일	1998. 4. 1.
저자	Sandra Mackey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442
ISBN 또는 ISSN	978-0452275638

내용 요약

이 책은 미국 독자를 대상으로 이란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저자는 이란인들이 두 개의 복합적이고 상호연동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고대 페르시아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 전통이다. 마치 야누스처럼, 이란은 7세기 이후로 페르시아의 얼굴과 이슬람의 얼굴이 때로는 조화를 이루거나 때로는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이어져 왔다. 저자가 볼 때, 20세기에는 페르시아 전통과 이슬람 전통이 서로 날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특히 1979년 이란혁명 이후 두 개의 전통이 경합하고 있다고 본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슬람 이전의 이란 역사, 아랍의 침략, 이란의 이슬람화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슬람 이전의 시기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그 시기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이슬람화 이후 이란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이란 왕조의 리더십과 이슬람화한 이란의 리더십을 비교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란의 권위 패턴을 소개한다. 세 번째 부분은 카자르 왕조의 몰락과 팔레비 왕조의 등장을 다루고 있다. 네 번째 부분은 팔레비 왕조의 몰락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등장, 혁명 지도자 호메이니의 사후에 벌어진 권력 투쟁,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이란 이라크 전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이란의 정치, 역사, 문화의 복합적인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이란에 대해 왜곡되고 경도된 시각을 가지고 있던 미국인 독자들의 인식을 수정하는 데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